

월 양 계

12월호

- ◎ 11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첫 눈이 내리고 영하권을 보여주었다. 금년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춥거나 더운 날씨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였다. 날씨 변화가 심할 때 양계장 관리에 소홀할 경우 농장의 생산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영하권의 날씨에 온풍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의 위험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또한 폭설에 대비해 농장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농장 내외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세심함이 필요할 때이다.
- ◎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철새축제가 한창이다. 정부에서 시의 감염원으로 철새를 지목한 것과는 무색할 정도로 철새축제는 아무런 대비책 없이 열리고 있어 양계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1월부터 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철새축제 등에 대한 대책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는 물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외적인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 ◎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위원회와 감사가 선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관리위원들은 이달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 자조금사업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발빠른 행보가 예상된다. 산란계 자조금 사업은 비록 임의자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보다 많은 금액이 거출되면서 업계에 좋은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산란계의무자조금 사업도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 최근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의사 처방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의사 양성, 단계적인 실시 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여론수렴에 들어갔지만 각 업계간의 이견차이가 커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 협회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정부에서 확실한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하되 기반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마찰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는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고, 항생제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